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속에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생산공정들과 제품진렬실, 종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실험분석실, 실내체육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흡잡을 데가 없는 멋쟁이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생산공정조종과 경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제작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식료공업의 표준화된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중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갖가지 강냉이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원료보장대책을 바로세우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들데 대한 문제,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강냉이가공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이 되게 할데 대한 문제 등 공

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마음먹고 달라붙어 건설한것이 알린다고, 당의 주체적식료공업정책과 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반영된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일꾼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집행

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평양시당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이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일을 잘하고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강냉이가공공장건설에서 자기들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평양시민들과 공장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의 위훈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방들에서도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강냉이가공품을 보내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이번 공장에서 세계적수준의 최첨단축정계기를 연구개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했다고, 큰일을 해냈다고, 개발자들을 직접 만나보고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혁명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축정계기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고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고있는 신의주축정계기공장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국방부문에 쓰이는

새롭고 현대적인 축정계기들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공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생산장성의 열쇠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에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자기들이 어떤 일터에서 일하는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높은 생산성과로 수령님들의 업적을 빛내여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공직장, 조립직장,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돌아보신 다음 새로 연구개발완성한 축정계기의 기술적특성과 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만든 축정계기가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최첨단축정계기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한것은 경이적인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이번에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화, 현대화, 국산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발전된 축정계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점령하여야 할 생산목표를 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식당과 후방경리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그들이 더 큰 생산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며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을 돌아보니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성이 대단히 높다는것을 절감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로동계급들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자신께서 이 공장의 명예지배인이 되시겠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웅적

조선로동계급들의 가슴마다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총정신이 뜨겁게 맥동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현실은 그들의 정진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중운동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로동계급들이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들처럼 살며 투쟁한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함께 군자리로동계급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리는것이 좋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의 경제강국건설로선과 전략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군대에 보내줄 더 많은 계기류들을 개발생산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태양조국은 무궁번영하리라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과시하는듯 참매가 훨훨 날아에는 공화국의 푸른 하늘가에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국기가 펄펄 나부끼고있다.

가없이 펼쳐진 산천은 아름다운 목란꽃마냥 눈부시게 변모되고 인민의 마음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날로 더욱 부풀고있다.

공화국창건 67돐이 다가오는 지금 사람들은 절세위인들을 모시며 강국으로 자랑떨쳐온 공화국의 역사를 긍지높이 되새기고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이 걸어온 근 70성상은 사대와 땅국으로 수난받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선군,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자기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온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 기적과 번영의 년대기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에서 살아보려던 우리 민족의 세기적원인을 풀어 주신 공화국의 창건자, 영원한 국가주석이시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밝히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외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셨으며 해방된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인민이 주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안아오시였다.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타승하고 영웅의 나라로 자랑떨칠수 있는것도,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 재더미우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는것도 절세의 위인이신 아버지수령님의 투철한 자주사상과 비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공화국을 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지난날 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민으로 키워주고 빛내주

신 아버지수령님의 거대한 업적은 인민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인민을 위해 사색하시고 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휴식을 권유하는 일군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곤 하시였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심려를 놓으십시오 하고 말하지만 난 그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넣는것만큼 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것을 보면 정말 사는 보람이 있고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것이 편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것이 나에게는 더없는 보람이고 락입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락으로, 기쁨으로 여기신 수령님이시였기에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끝없이 이어가셨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위대한 심장을 강그리 불태우실수 있는것이다. 진정 수령님처럼 당대에 나라의 존엄과 지위를 그처럼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민족앞에 거대한 공적을 쌓으신 국가지도자는 없었다.

하기에 어느해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화국이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수반으로 추대할 날입니다. 수령님께서



백두산에 오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는 일찌기 30대에 국가수반이 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서는 사실 말이 쉽지 30대에 국가수반이 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었다고, 우리는 수령님께서 기록하신 업적을 고수하고 전통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위엄은 태양만이 빛내일수 있다.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회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대를 이어 길이 빛내갈수 있었다.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것은 수령님의 넘원인 동시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절대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늘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탁월하기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 있다고 말씀하곤 하시였다.

민족의 대국상 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헤쳐오면서 전체 인민은 수령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뼈부로 절감하였다.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끈질긴 봉쇄와 침략위협, 흑심한 자연재해, 모진 식량난과 굶주림은 공장들...

이 엄혹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절대세력의 독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어 공화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만

굴마다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그런 지상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나는 매일도 현지지도를 떠나려고 한다고,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될 래일을 향하여 나는 기발을 들고 앞으로만 내달리겠다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무적의 타격수단들도 다 만들어낼수 있는 자위적국방공업의 막강한 힘과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른 오늘의 영광과 긍지, 자체의 CNC기술과 주체철, 주체비료와 주체비날론,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어 공화국의 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만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우에서 이룩된것임을 사람들은 심장으로 새겨안고있다.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의 숭고한 녀과 위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며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새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는 력사적인 개선연설로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친필서한으로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애국애족애민의 숭고한 경륜으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나라의 전반사업은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로 지향되고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 현실에 철저히 구현되어 전반적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이번에 전쟁직전에까지 갔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가셔지고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게 된것도 정세의 난황을 헤칠 단호한 결심들과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전국, 전민, 전군을 산악같이 불려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뜻과 녀원이 어리여있는 이 땅우에 인민의 만복이 꽃피려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고도 헌신적인 령도에 의해 오늘 공화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눈부시게 비약하고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기에 자주와 인민,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년만년 무궁번영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 떨치며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자주와 인민, 인민의 길로 계속 꽃피어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공화국을 영원토록 강성번영하는 나라로 빛내이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이고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자기의 근본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는 자주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새로운 병진로선의 제시와 같은 결단성있는 사변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최고리익을 위한 길에서는 추호도 타협하거나 주춤거리지 않는 공화국만이 단행할수 있는 패거이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돌파구도 자기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열고 21세기 문명국을 건설해도 자기 식으로 해나가는것이 공화국의 일관한 자주적립장이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주의 궤도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 제재와 봉쇄를 단호히 짓부시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령역에서 눈부신 기적과 변혁이 이룩되고있는 조국에 대한 자부과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은 선군으로 강대한 불패의 나라이다.

강위력한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평화와 번영도 있다는것이 그의 드림없는 정치신조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기술에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침략 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위력한 전투함선들과 초정밀화된 전술유도무기체계개발을 비롯하여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첩령과 오성산으로부터 서남전선의 최남단 열점지역에 이르는 전군의 싸움준비를 현지에 서 지도하시고 거세찬 훈련열풍을 일으키신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강군의 위력은 더

욱 백배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은 사회주의기치높이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온 나라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인민 존중, 인민사랑의 화원으로 전변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인민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사회적시책들이 실시되고 국가적책력으로 마련된 현대적살림집들과 마시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문화생활기지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고 철령아래 사파바다와 같은 무릉도원이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지고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조국에 대한 찬가를 마음속으로 소리높이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위업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인민들의 자주적인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떨치며 승승장구하고있다.

박철권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주체37(1948)년 9월 9일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 이튿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였다.

정강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시정방침이 천명되였다.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민족자주위업실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공화국의 창건은 철두철미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건국로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우리 인민을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국제무대에서 당당

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나라로 빛을 뿌리게 한 특기할 사변이었다.

주체83(1994)년 7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할데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모신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며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곧 수령님이라고, 자신께서는 이러한 립장과 자세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생존시와 다름없이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오직 김일성주석 한분만으로 력사에 영원히 빛내이도록 하려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신념과 의지에 의해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새롭게 수정보충하면서 헌법서문에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한 공화국의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그날 경축광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따라 우리 조국과 인민이 걸어온 애국애족위업의 자랑찬 로정을 총화하시면서 앞으로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전략적 과업을 밝히시였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 서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승리가 있다고 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공화국기는 애국의 넋을 불태운다

얼마전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또다시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한 공화국의 여자축구선수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지금도 온 나라를 흥분케 하고있다.

그때 우승의 기쁨만큼 비행기에서 내리는 애국 선수들의 품에는 공화국기가 휘감겨져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으면 저렇듯 공화국기를 한몸에 안았으랴.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이 나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우승을 쟁취하는것은 그 무슨 개인의 명예나 재부를 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재부나 명예를 바라고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뛰지만 공화국의 선수들은 하나같이 조국의 존엄을 떨치려고 뛰고 또 뛰고있다. 그리고 우승하여 공화국기가 오를 때에는 조국과 인민에게, 자기 정도자께 기쁨을 드렸다는 생각에 격정의 눈물을 흘리곤 한다.

세계선수권보유자인 인민체육인 배길수선수도 금메달을 쟁취한 후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조국이 승리했다는 쾌감에 기쁘기 그지없다. <조국만세>를 목청껏 부르고싶은 심정이다. 경기시간 50초 동안 나의 경기모습을 우리의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 부모님과 다정한 이웃들, 선생님

들, 동무들과 조국이 지켜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힘이 저절로 생기고 열정이 샘 솟았다. 오늘의 승리는 내 조국의 승리이다.》

오늘 공화국의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이다.

국제경기들이 나가 우승을 하여 공화국기를 날리는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고 영웅들이며 깃쟁이들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며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도 가슴한가득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번 동아시아컵경기대회때에도 경기과정을 지켜보시고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어린 감사전문도 보내주시었고 돌아올 때에는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어 애국 선수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이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았기에 체육인들의 정신력은 최대로 폭발하였다.

비단 체육인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가슴마다에 간직하고있는 뜨거운 조국애이다.

공화국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단순히 자기가 나서자란 곳이 아니다. 자기와 가정의 운명과 미래의 전부이다. 그 품을 떠나서는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없다는 철리를 가슴속깊이

간직하였기에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는 것이다.

평온한 나날이나 준엄한 나날이나 변함없이 발휘되고있는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애국의 마음은 원자탄보다 강하다.

얼마전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까지 치달았을 때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한사랄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머리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을 밀어내었다. 이에 대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드림없는 조국사수와 혁명보위정신,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의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시는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목숨바쳐 사수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뜨거운 조국애에 의하여 우리 조국앞에 닥쳐왔던 위기가 우리의 발밑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위험천만한 사태가 평정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언제나 소중히 차넘치는 이런 애국의 마음이 있어 공화국은 강하고 필승불패이며 람홍색 공화국기는 조선의 하늘가에, 세계의 하늘가에 영원토록 펄펄 휘날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수기

고마운 내 삶의 품

나는 50여년간을 남조선에서 살아왔다. 60환갑을 넘기면 족한것으로 여기던 지난날같으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남쪽세상에 몸담아온 셈이다. 기리속에 그려보던것이상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태를 묻은 군산땅에서 살아오면서 미군에 의해 밤낮으로 감행되는 살인, 강도, 폭행, 강탈, 강간 등 치명리는 범피만행들이다. 오죽했으면 군산시민들이 자기 고향에 있는 《아메리칸 타운》이라는 미군유용장을 가리켜 《범죄의 전시장》이라고 저주를 퍼부었겠는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낸 군산소년총격사건도 내가 살던 고향에서 일어났것이었다.

그뿐이랴. 《등록금》이라는 파도에 밀리어 힘들게 시작한 공부를 그만두고 설움에 울던 일이며 자습으로 대학의 체육교수나 발시험에서 합격되었으나 돈있고 권세있는자들에게 밀려나던 일,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북에 의해 구원되어 환대를 받고 돌아온 친척 한분이 진실을 말했다고 하여 중앙정보부에 잡혀가 처형당한 일, 통일운동에 관여했다는 《죄》로 놈들의 함시적인 감시속에 숨어지내던 일,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가 경찰의 탄압에 심한 부상을 입고 나당굴던 일 등 회억하기조차 싫은 것이 사람 못할 세상에서의 고달픈 인생살이였다.

이런 세상에 환멸을 느낀 나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준것은 이북바로알기운동이였다. 이 과정에 나에게 새겨진 공화국의 참모습, 그것은 암야에 비치진 등대와 같은 것이였다.

하기에 나는 공화국이야말로 민족의 운명도, 인간의 참된 삶도 다 말아안아

주는 겨레의 진정한 조국이 라는 확신을 안고 남조선사회와 단호히 결별할 용단을 내렸던것이다.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 아니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머릿속에 그려보던것이상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특히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세금이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더우기 남조선사회같은 천대와 굴욕에 시달릴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아이들은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는 노래속에 배움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병치료를 받는 별천지를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 나였다.

그 품에 안겨 나는 공화국인들과 똑같이 고마운 사회적혜택을 누릴수 있었다. 의거하여 60이 다 된 사이에 조선체육대학 박사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부교수학과 학위를 받은 나는 남쪽에서 얻은 중병도 돈 한푼 내지 않고 큰 수술을 5차례나 받아 깨끗이 고치였다. 퇴원하던 날 나는 공화국의 인민적인 보건제도 가 하도 고마와 눈물을 흘렸고 남쪽에서 금성취장염에 걸려 병원문턱도 넘어 보지 못하고 34살에 한많은 세상을 떠난 불쌍한 누님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렇듯 회한한 현실을 목격했을 때의 나의 심정은 마치 썩은 도량창만 보아오다가 티없이 맑고 정갈한 샘을 발견했을 때의 심정이랄가 그보다 콜롬부스가 새 대륙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놀라움과 경탄그자체였다.

의거입북하여 러렸던 인민의 새 세상에 대한 경탄은 인민의 세기적인 꿈과 이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오늘에도 끝없이 계속되고있다. 회한한 마식령 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룡라민유원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양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하루가 다르게 도처에 우뚝우뚝 일떠서는 인민의 창조물들마다에서 행복의 웃음꽃 피워가는 기쁨넘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사는 천하제일강국의 래일을 환희에 넘쳐그려보곤 한다.

지구상에 나라도 많지만 내 안겨사는 공화국이야말로 인류가 세세년년 찾고 바라던 근로하는 인민의 참세상, 자본주의가 백년, 천년이 가도 이룰수 없는 인민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의 지상락원이다.

그러니 내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만월속에 후점이라고 아직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것은 이런 훌륭한 세상에서 남녘의 혈육들과 함께 복을 누리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래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온 겨레가 모여 복락을 누리려갈 통일의 그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남은 생을 강그리 바쳐가겠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리우갑



평안남도의 안주와 개천사이에는 자연의 경관을 한층 더 돋구어주는 인공호수 연풍호가 있다.

5 000여리의 물길을 따라 10여만정보의 부침땅을 관개하는 연풍호는 대자연개조공사인 평남관개에 의하여 생겨난 호수이다.

해방후 열두삼천리벌농민들의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려 몸소 평남관개공사를 맡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그곳을 찾으시고 이제는 열두삼천리벌에 해마다 풍년이 들게 되었다고 하시며 《연풍호》라고 이름 지어주시었다.

뜻깊은 연풍호는 주변경치가 너무 아름다와 오래전부터 인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되고 있다.

해마다 봄이면 호수를 둘러싼 낮은 산들에는 진달래, 봄맞이꽃, 살구꽃 등이 활짝 피어 향기가 그윽할뿐 아니라 소나무, 이깔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련상케 한다.

그뿐이 아니다. 사시장철 맑은 물이 출렁이는 호수에는 기녀어, 잉어, 붕어를 비롯한 갖가지 물고기들이 노닐고 유람선들이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오가는 풍경은 장관이다.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연 풍 호 반 의 선 경

연풍호의 북쪽 산봉우리에 올라서면 호수와 그 주변의 자연풍치를 다 볼수 있는 연풍루가 있고 호수기슭을 따라 정양소, 휴양소, 유원지와 함께 소년단야영소도 있다.

인민의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모습을 맑은 물결에 싣고 출렁이는 연풍호기슭에 오늘은 과학자휴양소가 틀지게 자리잡았다.

2년 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연풍호를 찾으시고 이곳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건설하

도록 위치를 정해주셨으며 그 자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한겨울의 맵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길없는 길을 걸으시며 휴양소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시었다.

그날 원수님께서서는 볼수록 경치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하시며 위대한 내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이곳에 과학자휴양소를 지어주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그후에도 건설현장을 거듭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

든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휴양소로 건설하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었고 《연풍과학자휴양소》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었다.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완공된 그날에는 배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니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한쪽의 그림같았다고, 자신께서 그러한 황홀하고 회한한 선경이 실물로 펼쳐졌다고,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절경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던 원수님이다.

연풍호의 자연풍치와 어울리

는 멋진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은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명당에 펼쳐진 회한한 선경이며 절경이다.

아름다운 호수가의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를 잡은 휴양소는 서로 떨어져있는 건물들사이에 외랑을 설치하여 휴양소 하나로 통일시켜 련결한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있으며 건물지붕재와 벽타일의 색 같은 물론 건물기둥에 붙인 석재도 품위가 있다. 여러 봉사시설들은 고급호텔수준으로 꾸려지고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

과 다용도야외운동장, 종합봉사소와 휴양각, 휴식터들도 훌륭하다.

휴양생들은 실내물놀이장의 맑은 물에 몸을 푹 잠그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가 하면 다용도야외운동장에서는 열띤 체육경기가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준다. 한쪽의 그림같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휴양소의 절경과 연풍호의 풍치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 휴양소봉사자들의 축하공연과 이채로운 연회상은 휴양생들의 기쁨을 한껏 더해준다.

하기에 휴양을 즐기는 과학자들은 《이처럼 훌륭한 곳에서 휴양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저마다 걱정들을 러치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시
묵
음

영원히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15 뚝에 즈음하여 —

9 월 2 일

한 춘 익

흐르는 세월에도 추억은 뜨거워
삼삼히 어려오는 걱정의 화폭이어
열광의 환호성
설레이는 꽃의 바다

신념을 지켜낸 자식들 돌아온다고
어머니조국은 환영의 꽃물결 펼쳐주고
하늘같은 복을 주는 그 사랑 고마워
자식들 눈물속에 어머니품에 안기고

신념, 그것으로 빛나는 9월 2일이다
그것으로 조국이 명절처럼 뚝었다
신념의 강국 내 조국의 기상이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혈맥처럼 뚝된 9월 2일이다

피절은 감방 산부담속에서

이런 날 보리라 꿈엔들 생각이나 했던가
예수의 부활은 믿어도
우리의 귀환은 믿기 어렵노라고
세상이 지켜본 9월 2일

몸은 비록 폐인이 되었어도
승리자의 기쁨과 환희에 울고웃으며
행복과 영광의 단상에 높이 올라
새 삶의 축복을 받은 날
우리모두의 생일처럼 간직된 9월 2일

신념이 안아온 승리가 어떤것인가를
신념을 지켜 싸운 삶이 얼마나 긍지높은
가를

은 세상에 힘있게 시위한 9월 2일
위대한 조국의 력사에 금문자로 빛나라라

흙없이 물없이 해빛없이

— 옥중수기중에서 —

김 동 기

여기엔 없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자연의 따스한 해빛이
있다면 습하고 칙칙한 어둠뿐

여기엔 없다
그 어떤 씨앗도 품어 싹틔우는
부드러운 흙이
있다면 차거운 땀기를 뺏는
싸늘한 콩크리트바닥뿐

여기엔 더우기 없다
내 고향 실개천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있다면 악취풍기는 구정물뿐

있다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악형뿐
피를 말리고 숨막히게 하는 고독뿐
살을 위해선 그 무엇 없어도
죽음을 위해선 모든것이 구비된

내 인생의 참된 나이

박 문 재

어머니 준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나는 너무도 불우한 운명
태어나니 망국노여
팔십나이 되도록 감옥살이라

어이 구순을 바랐으리요
각목에 맞아 살점이 터져나가고
모진 추위에 뼈까지 얼어드는
수십년 비전향의 나날
구세먹은 고목이 되었던 이 몸

여생에 바랄 녀두조차 내지 못한
부모처자의 사랑
바랬다면 바랬다면 오로지
3년세월 사람답게 살아본 공화국
죽더라도 그 품에 묻히고싶었던 생각

죽어서가 아니라

행복과 눈물

홍 명 기

왜놈의 계다짜에 짓밟히우며
설움에 찌들었던 소년시절
어린 마음에 짙어진 고통은 컸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배끓고 한지에 덩굴면서도...

원주의 철창속에 갇혀 38년
죽음보다 더한 그 세월에도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고싶으면 전향하라
몽둥이에 이 몸 갈가리 찢기우고
뫼이운 죽쇄엔 피절은 백발
엮키였
어도

누가 말했습니까

15척 담안의 0.75평 먹방

흙없이 물없이 해빛없이
인간은 결코 살수 없거늘
흙없고 물없고 해빛없는 산무덤에 갇힌
그래서 나는 인간아닌 인간이었다
1년, 2년도 아닌 34년 긴긴 세월

그러나 그속에서 나-인간이 살았다
죽음을 이겨내고 곳곳이 살아나왔다
흙없고 물없고 해빛없는 곳에도
나를 살려준 흙과 물, 해빛이 있었나니
오, 그것은 신념!

신념이 우리의 빛이었다
신념이 우리의 자양이었다
그래서 우리 긍지높이 자부하노니
우리 당 숨결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신념을 지켜 싸워온 값높은 한생을

살아서 돌아오도록 마음쓰신 장군님
조국의 품에 안기던 15년전 그날은
장군님 아버지 그 품속에
다시 새 생명을 받아안은 날

이 몸 말길 거처지가 없어
고독하고 쓸쓸했던 이 몸을
신념을 지켜 싸운 영웅이라고
고대광실 꽃방석에 앉혀주시고
날마다 온갖 보약 보내주시며
팔순에 청춘을 꽃피워준 사랑이어

세월은 머리에 흰서리 없어주어도
오늘도 이어지는 그 사랑 받아안은
무병장수 청춘을 노래하노니
어머니 준 나이는 아흔네살이어도
장군님 주신 내 인생의 참된 나이
푸르른 청춘 15살인가 하노라

슬프고 아플 때 터치는것이 울음이라고
아닙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아들의 설움속에서도
남녘의 철창 쓰라린 고통속에서도

그런데 어인 일입니까
15년전 판문점을 넘어서던 그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 순간
눈물이란 몰랐던 70의 인생이
뫼놓아 울음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날마다 울었습니다
고작 0.75평이 생의 전부였던 이 몸이
덩실한 집에 주인으로 들어설 때도

교형리들 못매질에 피멍든 이 가슴에
영웅의 금별메달이 빛날 때에도...

나이가 들어 헤쳐지는 눈물이겠습니까
사랑이 늘 내곁에 머물러
고마움에 겨워 흘리는 눈물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행복
그 행복 어떤 행복인지 잘 알아

나는 졸업하지 않았다

손 성 모

위대한 태양의 찬필로
빛을 뿌리며
나의 집 책상위에 눈부신
김일성종합대학졸업증

룡남산 푸른 하늘에 꿈을 신던
홍안의 시절은 멀리 갔어도
마음에 벗지 않은 그날의 대학생교복
나는 54년간 대학생으로 살고있다

풀벌레소리마저 안타깝게 기다려만지는
철창안 고요속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울리던
선생님들의 목소리
죽음을 이기게 하는 불사신의 넋이 되었다

모진 못매로 쓰러졌다가도
그 강의를 새기며 다시 일어섰고
교형리들의 끈질긴 전향설교에도
그 강의에서 배운 진리로 맞받아 싸웠으니
어찌 지옥같은 철창속의 수인이었다 하라

세월은 가는것입니까 오는것입니까

김 용 규

사람의 생은 한번 주어지기에
일생 또는 한생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법칙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생, 삼생이 있음을
나는 당당히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파연 인간이라 할수 있었겠습니까
피고름이 묻어나는 한겨 수의속에
악형으로 부서진 뼈를 감싸고
백발을 머리에 엮고 돌아왔던 나는 폐인
장군님 이 심장에 재생의 활력 주셨습니다

늙어 병약함은 인생의 리치
다 죽어 의식조차 없던 90의 이 고령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은
또다시 생의 숨결 부여주셨습니다
내 운명의 수호신 되시어
쓰러진 이 몸 다시 일으켜세우셨습니다

천번을 만번을 다시 래여난대도

최 태 국

곡절도 많은 인생길에
소중한 모든것 잃을수도 있어라
하지만 죽는대도 끝까지
버릴수도 잃을수도 없는것 있거니
그것은 신념!

신념은 배신할수 없는 사랑
천만금과 바꿀수 없는 믿음
오, 그 사랑과 믿음을 주신
위대한 은인을 길이 믿어 따르는
숫눈같이 깨끗한 량심과 의리

버리면 짐승이 되고
지키면 참인간이 되는
신념— 그것은 혁명가의 재부
그 재부 수령님 주셨어라
장군님께서 주시였어라

악형의 모진 세월은
뼈를 동강내고 살점을 뜯어낼순 있었어도
신념의 한조박도 떼어낼순 없었어라
그 신념 지녀 수십년세월
우린 《죄인》이 아닌
승리자로 싸워 이길수 있었노라

승리자에겐 후회란 없듯이
청춘을 바치고 가정을 바쳤어도
리갈도 후회없는 우리의 마음

눈굽에 저절로 맺히는 이슬입니다

인간은 아마도
어머니품에서만 울수 있나 봅니다
조국의 품에 안기여 15년세월
나는 날마다 울며 살았습니다
행복에 겨워 지금도 울며 삽니다
아, 눈물은 내 인생의 행복인가 봅니다

세월의 흐름속에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변함없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었거니

오, 수십년세월 끝나지 않은 강의
그것은 비록 몸은 목이웠어도
원수와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한
승리의 철학! 신념의 철학!

시련의 그날뿐이라 행복한 오늘에도
강의는 계속되거니
신념을 지켜 빛나는 한생
의리의 한생으로 빛내이는가
이 마음 충정으로 불태워주며

삶의 거울로 펼쳐본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증
신념의 증표로 펼쳐본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증
룡남산의 아들로 영원히 살라고
심장을 뜨겁게 불태워주는
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증이어

강쇠도 오래두면 녹이 쓰는 법
그 어떤 명약도 죽음을 되돌리지 못하는 법
하지만 장군님 사랑 원수님 사랑은
죽음도 이겨내게 하는 사랑
90의 고령도 청춘으로 살게 하는 사랑

그 사랑에 생사기로 해매이던 이 몸이
오늘은 두번 세번 받아안은 새 생명으로
인생 청역에 새 삶의 활력에 넘쳐 삽니다
로쇠와 죽음으로 향하던 인생의 시계바늘이
청춘행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세월은 가는것입니까 오는것입니까
은혜론 조국의 품속에서
나날이 젊어만지는 내 인생의 기쁨
그 기쁨을 싣고 세월은 옵니다
나에게 청춘을 주며 젊음을 주며

오늘도 그때처럼 변함없거니

어찌 우리 심장 높워지 않으랴
세월의 풍파를 맞받아 붉은기 휘날리고
백두의 칼바람 기상으로 정의를 수호하며
강성변영의 미래로 달리는 조국
이 위대한 조국을 우리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 왔으니

신념을 지켜 받들 멋이 있고
인생의 귀중한 모든것
다 바쳐 아낌없을
위대한 태양의 품 나의 조국이어

실사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천번을 만번을 다시 래여난다 해도
신념을 지켜 싸워온
그 값높은 생을 다시 살리라
원수격멸의 날이 오면 서슴없이 결전장에
나서고
단두대우에도 웃으며 오르리라

오, 우리 생명이며 넋인 신념
그 신념을 지켜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경애하는 원수님 받들어
백두의 넋으로 심장 불태우며
영원히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리라

민족무용발전에 바쳐진 애국의 삶

절세의 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온 사람들속에는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초대위원장이었던 인민배우 최승희선생도 있다. 오늘도 령도자와 인민의 추억 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그는 조선춤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하여 민족무용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었다.

최승희선생은 어려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1911년 11월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는 어릴 때에 무용을 배웠는데 그가 춤가락을 익히는 나날은 산실고 물설은 라향에서 흘렸다. 15살 나던 해인 1926년부터 일본 이시야바꾸무용학교에서 무용을 배운 그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춤을 살려내어 멋진 춤가락으로 만들 굳은 결심을 품고 귀국하여 도시와 농촌, 마을을 메주뚫듯 찾아다니며 춤꾼들이나 혹은 승려나 기생들의 춤가락에서 민족고유의 춤가락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다듬고 세련시켰다.

연약한 너인의 몸으로 팔도강산을 헤매며 전통춤가락을 살려낸 그의 피타는 노력과 수고는 민족적량심과 애국심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것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민족무용을 위해 노력한 그의 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그는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 등의 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시었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면서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끝내 완성한 민족의 춤을 안고 세계무대에 나섰다.

일제의 강박속에서도 《샤이 소끼무용단》이 아니라 《최승희무용단》이라는 이

름으로 각국 무대에 나선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치마치고 리를 입고 조선사람임을 뚜렷하게 말하였다. 민족무용으로 사라져가는 조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싶은것이 그의 마음이었다. 그는 《해성과 같이 나타난 무희》, 《세계일류의 무용가》로 일약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하였다. 해방후 한 출판물에는 당시 그의 심정을 엿보게 하는 글이 기록되어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무용예술을 환영하여주었으나 그때 기쁨보다도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슬픔이 앞섰다.》 아무리 아름다와도 그는 나라를 빼앗긴 조선사람이었다. 누구나 그의 아름다운 춤을 보며 기뻐하였지만 누구도 망국노의 마음속설음을 알아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나는 통락당하는 예술가, 나라없는 예술가, 약소민족의 예술가의 슬픔과 고난의 길을 더는 걸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1948년 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8.15해방으로 그에게 차례진것은 진정한 삶의 자유와 권리, 환희의 춤가락과 아름다운 무대가 아니었다. 미군정은 그에게 온갖 회유와 감언리설로 미국식무용을 강박하였고 눈우에 서리친다고 비난할 친일을 하다 승미로 변신한 사람들은 적반하장격으로 그더러 해방전에 《친일》을 했다며 음으로양으로 모해하고 위협공갈하였다.

참다운 무용의 길이 막혀 몸부림치고있던 그에게 생의 희열을 주시고 재능의 활무대를 열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위촉장을 보내시고 그가 평양에 왔을 때에는 친히 만나주시고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자재를 다 보장해주도록

하겠으니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우리의 우수한 무용예술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자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명당자리에 있는 제일 좋은 건물을 내어 《최승희무용연구소》를 꾸려주시고 무용예술에 전념하라고 승용차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 모든 것이 귀하던 그때 막대한 자금을 돌려주시고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이 것처럼 우습하던 때 일본총독이 아니라 조선총독을 추었으면 애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하시며 그를 굳게 믿어주신 하늘같은 믿음속에서 그는 환희의 절정을 맞이하였다.

1947년 제1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조선청년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세계에 나선 역사적인 무대였다.

《최승희무용연구소》 연구생들이 민족무용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하였다. 그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그는 북조선의 행복 조건에서 얻은 영예이라고, 그렇게도 그림던 내 나라의 이름으로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나선것부러가 무엇보다도 커다란 감격이라고 목메여 웨치었다.

최승희선생은 우수한 민족무용예술유산을 발굴하고 예로부터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추던 좋은 춤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해방의 노래》, 《농악무》, 《봄노래》와 같은 현실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는 한편 《양산달춤》과 같은 민속무용유산들도 발굴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역사적인 민주선거와 4월남북련석회의성과를 축하하는 경축공연무대에 올려 인민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의 무용활동은 조국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중단없

이 이어졌다. 예술인들이 군복을 입고 불비 쏟아지는 전장에서 종군의 길을 걷던 때에 최승희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해 후방에서 그리고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무용연구와 작품창조활동을 계속하였다.

하여 그는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입선하여 평화상을 받은 무용 《조선의 어머니》와 같은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그후에도 그는 무용예술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민족성을 구현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고심어린 탐구와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행복한 젊은이들》, 《샘물터에서》, 《갈춤》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정녕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인간으로서, 세계적무용가로서 새로 태어난 그의 환희의 분출이었다.

그는 현대조선민족무용의 기초를 완성하는 과정에 많은 유산을 남기었다.

10여편의 장담무용극을 포함하여 300여편의 무용작품창작과 《조선민족무용기본》, 《조선아동무용기본》 등 수십편의 도서와 논문집필,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무용배우, 안무가, 연출가, 학위학직소유자 양성...

이것은 그가 해방전에는 상상도 못한것이었다. 아직까지 세계는 무용예술의 모든 령역에서 이렇듯 많은 유산을 남긴 무용가를 알지 못한다.

그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랑물은 세번만 마시면 싫증난다. 사랑물이 아니라 일생 먹어도 싫지 않는 구수한 승냥과 같아야 한다.》, 《발레를 해도 조선의 녀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의 말을 통해 조선사람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교유의

민족무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무용교육에서도 민족무용교육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예술창조와 교육사업의 지침으로 삼고 자신을 더욱 완성하고 세련시킨 세계적인 무용가로서의 그의 성장의 높이를 잘 알수 있다.

1957년에 최승희선생이 조선민족무용을 전면적으로 포괄하면서 우리 춤의 동작과 기법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여 내놓은 《조선민족무용기본》은 민족의 자랑이고 국보이며 그가 우리 무용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민족의 재사들을 아끼고 삶을 빛내주는 공화국의 품에서 최승희선생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초대위원장, 무용학교 교장, 국립무용극장 총장으로 빛나는 삶을 누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를 우리 나라 민족무용발전에 크게 기여한 애국자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그가 창작한 작품을 빛내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제 59(1970)년 3월과 7월에 그가 창작하고 출연한 《부채춤》을 예술영화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넣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무용 《환희》를 3.8국제부녀절 기념공연무대에 올리도록 하여주시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딸 안성희가 창작한 《농악무》, 《목동과 처녀》, 《쟁강춤》, 《조개개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무용작품을 무대에 재현하도록 하여주시고 그가 쓴 도서 《조선민족무용기본》(1, 2)을 무용가 후비양성을 위한 교

육사업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그의 춤체를 《최승희춤체》라고 불러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제100(2011)년 12월초에도 최승희선생이 창작한 무용의 기본 동작들을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보급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보살핌속에서 명성높은 무용재사로 한생을 빛내인 최승희선생은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내세우고 자랑할줄 알아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재중시의 숭고한 뜻과 열렬한 민족애, 한 예술가의 재능과 춤체를 귀중히 여기시고 널리 보급발전시키도록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사랑속에 오늘도 민족의 추억속에 살아있는것이다.

최승희선생의 인생행로는 철세위인을 모시여 개인의 운명도 재능도 빛나고 행복도 있다는 생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일제의 탄압속에서 민족적량심을 버리지 않고 애국적이며 선진적인 창작활동을 진행하여온 강호는 우리 나라 현대문학예술 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다방면적인 예술가이다.

그는 식민지노예생활의 불합리한 모순을 일찌기 깨닫고 선진적인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였고 어떻게 하나 조선민족예술을 창조해보려는 시도를 가지고 동분서주하였다.

1920년대 우리 나라 영화예술의 첫 개척자인 라운규와 함께 영화 《아리랑》 창조에 참가하여 모진 곤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조선을 알게 하려고 하였다.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우리 나라 첫 영화미술가 강호

는 미술에 대한 소박한 꿈을 안고 부모도 모르게 일본에로의 류량의 길을 떠났다. 온갖 민족적멸시와 참예기 어려운 모욕을 감수하며 팔목마다 줄지어있는 뽕집들의 심부름과 우유, 신문배달을 하면서 쉬임없이 뛰여다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린배를 달래면서 돈을 모았다. 겨우 회화전문학교를 마쳤으나 붓과 안료를 살 돈이 없어 도포의 골목을 방랑하는 신세를 면할수 없었다. 불우한 식민지청년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불만과 알지 못할 분노를 두어 어디에 하소연할데 없었다. 도포바닥을 헤매 보았으나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림그리기에 필요한 도구들과 종이를 살 돈이 없는 그에게 미술공부하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

지가 달라질수는 없었다. 돈이 없어 회화창작과 같은 독자적인 활동을 할수 없었던 강호는 1925년 서울에 있는 영화예술협회에 들어갔다. 이 시기 일본영화에만 매달리고있는 사회적인식을 깨뜨리고 조선영화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애국적인 영화인들의 사회적단체로 조직된것이 영화예술협회였다.

이 시기 라운규와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대구,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영화 《아리랑》 창조에 참가한 강호는 민족적인 감정을 싹틔우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1927년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동맹에 가입하여 미술부를 책임지게 된 그는 선진적인 화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그는 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동맹 영화부

기판잡지 《우리 동무》 편집사건으로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어 수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출옥후 강호는 서울에서 추방되어 부산으로 쫓겨갔다. 가슴에 치밀어오르는 일제에 대한 분노와 민족적울분을 참을길 없었으나 왜놈들에게 굴심거리며 살기보다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잡일들과 간판도안, 소설 《황진이》의 삽화를 그려주고 살아가다.

출옥후 해방되는 날까지 무소속무대미술가로 연극 《춘향전》, 《초봄》, 《그리운 거리》, 《력사》와 같은 연극의 무대미술을 맡아하였다. 해방은 그에게도 밝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프로레타리아연극인동맹에 참가하여 서기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새 조

선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려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강제한 남조선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험악하게 번져졌으며 문학예술도 반동화, 퇴폐화되어가고있었다.

핵심적인 문예인들이었던 작가 박세영, 송영을 비롯한 애국적인 문인들과 함께 남조선에 그냥 눌러있을수 없다고 도의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이 바라는 새 민주조선의 문학예술은 공화국북반부에 있었다. 1946년 7월에 강호는 위대한 해방의 은인이시고 민족의 영웅이신 철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왔다. 그가 택한 결심은 우연도 아니었고 일시적이분도 아니었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나날

지금도 전쟁로병들이 감회깊이 추억하고있는 예술영화 《또다시 전선으로》(1952년)의 연출과 미술은 그가 담당한행한 것이었다. 이 영화는 제8차 카를로비와리국제영화축전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수여받았다.

그는 연극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1955년), 《1211고지》(1958년), 《조선의 어머니》(1959년), 가극 《밀조국해방의 신념을 간직하고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적량심과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것이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속에 북조선연극동맹 서기장, 국립예술극장 총장, 조선화보사 사장을 거쳐 1960년 말에는 평양미술대학 영의 확대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량심적이고 애국적인 문예인이였으며 문학, 영화, 무대미술도 하고 삽화, 수채화도 잘 그린 다재다능한 예술가였다.

강호는 일제강점시기 1910년~1920년대 카프의 출현과 1930년대의 초기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의 확대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량심적이고 애국적인 문예인이였으며 문학, 영화, 무대미술도 하고 삽화, 수채화도 잘 그린 다재다능한 예술가였다. 최명수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언행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북남합의에 따라 며칠 후인 7일에는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이 예정되어있으며 관계개선을 위한 향후일정들도 준비되고있다.

그러나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을 거듭하면서 다시 북남관계에 복잡성을 조성하고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해외행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가 《북의 비무장지대도발사태》니, 《언제라도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다.》느니 하면서 최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외곡했을뿐 아니라 그 누구의 《건설적역할》까지 운운하며 우리를 심

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내외가 일치하게 평하고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과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철저한 자주적립장에서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진접촉을 제기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날조하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추파를 던지며 속베뚱어린 소리를 늘어놓는것을 보면 말로는 화해와 협력을 운운하지만 진짜속심은 그 누구에게 기대어 동족대결만을 추

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아래급에서 이리저리한 온당치 못한 망발들이 튀어나오고 있는것도 문제이지만 집권자까지 북남합의정신에 저촉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있는것은 당면한 북남관계 일정마저 가늠할수 없게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사실 지금의 북남관계는 언제 어떻게 개질지 모르는 살얼음장과 같다고 할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남조선당국에게 어떻게 화해와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북남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충고도 주고 북남관계개선을 달가

와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 각성을 가지고 특별한 주목을 둘릴것을 강조도 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초보적인 정치안목이 있다면 이런 예민한 시기에 관계개선의 판을 짤수 있는 언동을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더우기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지키는 힘은 그 어떤 외부세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거는것처럼 어리석고 백해무익한 일은 없을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민족내부문제를 밖에 돌고다녀하며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어떻게 마련된 북남합의가 실속있게 리행되어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는가, 아니면 또다시 정세가 악화되어 극단으로 치닫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지금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일거일동을 엄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평화를 키우며 여기는 승고한 리념의 승리

지난 8월 하순 조선반도에서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원래 동서 600여리 군사분계선일대로 말하면 북과 남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최대의 열접지대이다. 더우기 이때는 남조선에서 동족을 겨냥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있다. 게다가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그 누구의 《도발》과 《억제》를 구실로 핵잠수함과 전략핵폭격기의 투입까지 《검토》하며 핵전쟁발발을 기정사실화해 놓고있었다.

지난 세기 50년대 한차례의 전쟁을 치르었던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지 않는가 하는 불안과 위구에 싸여 세계의 이목이 조선반도에 쏠렸다.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 직전상황에서 북과 남이 고위급진접촉을 가지고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공

감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공동의 과제에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은 해소되었으며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로써 북남관계에서 화를 북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획기적극면이 열렸다.

북남고위급진접촉결과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승고한 리념의 승리이다.

만약 무력충돌로 치닫던 당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못하고 전면충돌로 이어졌다면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지 않았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 후과는 상상만 해도 참혹한것이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열핵전쟁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다. 그 전쟁의 재난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때와는 대비가 되

지 않을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민족이 참혹한 핵전쟁의 참화를 들쓰게 될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조선민족의 생존과 미래와 직결되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

자비를 모르고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은 북과 남을 가리지 않으며 전선과 후방,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그만큼 무차별적이고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초래하는 것이 전쟁이다.

그 몸서리치는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터지면 안된다는, 민족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이번에 전쟁으로 치닫던 시계바늘을 멈춰세웠다. 그리고 완화와 북남관계개선으로 북남이 뜻과 의지를 합치게 했다.

이번에 공화국은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진접촉을 열고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북과 남이 고위급진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는것이다.

북남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리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족을 우위에 놓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워 풀어나가는 진지한 자세를 견지해나가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을 안고 북남이 뜻과 힘을 합쳐 합의 리행에 성의를 다할 때 오래동안 불신과 대결로 점철되어온 북남관계에서는 새로운 진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가 북과 남에 축할수 없는 충돌로 치닫던 험악한 사태를 막고 화해의 손을 잡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환영하고있다.

이번 북남고위급진접촉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승고한 리념의 승리이며 북과 남이 민족과 통일을 진심으로 위하고 성실한 자세로 노력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전쟁으로 치닫던 엄중한 정세를 완화와 대화의 방향으로 돌려세운 이번의 사변적인 합의는 그 어떤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선사한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북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것이다. 하기에 온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있다.

북남이 통일에 가는 길에서 아직 헤쳐넘어야 할 시련과 난관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지난온 북남관계력사를 놓고보아도 북과 남이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우 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서로 뜻과 힘을 합친다면 넘지 못할 장벽이 없으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 어놓을수 있다는것을 확신시키고있다.

특히 북남선언들이 리행되던 6.15통일시대가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북과 남이 서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자주통일시대를 활력있게 전진시킨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었다.

민족의 단일성과 하나된 모습을 온 세상에 파시한 제14차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와 제22차 세계 대학생체육경기대회, 통일의 새 아침을 불러오는 퇴성마냥 착공의 첫 발파소리 장쾌하게 울린 동해선과 서해선철도 및 도로련철착공식, 다시는 만날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눈물겨운 상봉, 남녘 동모들이 꿈에서나 그려 보던 금강산에로의 탐승길...

참으로 6.15통일시대

지금 북남간에는 모처럼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북남고위급진접촉을 통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북남고위급진접촉에서 이룩된 합의가 철저히 리행되어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것을 바라고있다.

북남사이의 합의를 철저히 리행하여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긴장완화의

긍정적흐름을 잘 이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불순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대결과 충돌의 과거로 돌려세우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10월

로 인해 우리 겨레에게 들쳐워지는 불행과 고통이 계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도 그만큼 료원해지게 된다.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북남관계를 신뢰와 단합의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한것도 북남관계발전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적십자실무접촉에서 좋

은 합의가 마련되고 북남고위급진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련이어 성실히 리행된다면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게 될것은 자명하다. 올해초 공화국은 신년사를 통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예고하는 긍정적흐름이다.

어떻게 마련된 이 흐름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워서는 안된다.

본사기자 김철민

리엄금

완화의 흐름을 즐기차게 이어가야

《베라살 포계획》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며 북을 극도 자극하는 망발들이 튀어나오고있는것도 그 반증이다. 북남관계가 불신세력들이 바라는데로 또다시 지난 시기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간다면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분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1)

평양에서 열린 뜻깊은 4월남북련석회의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북과 남 사이에 고위급급접촉이 이루어지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됨으로써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북남관계에서 화를 북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획기적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북남고위급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 * *
지금으로부터 70년전, 온 겨레는 조국해방의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해방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거리들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한민족, 한강도를 두동강내려는 외세의 검은 손은 조선민족에게서 해방의 기쁨을 여지없이 빼앗았다.

세계제국야망에 들떠있던 미국은 조선반도를 침략의 발판으로, 대륙을 잘라내며 《단검》으로 묘사하면서 우리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되기 바쁘게 제멋대로 저주로운 38° 선을 조작해낸 미국은 《해방자》로 자처하며 피눈은 군화발을 남조선에 들여놓자마자 조선반도의 영구분열을 획책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조선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들을 탄복하게 유린하고 송미사대로 썩들은 남조선의 애국배족세력을 부추겨 유엔의 간판밑에 범죄적인 《단선단정》 조작책동을 악랄하게 벌여왔다. 남조선에서의 《단선단정》이 그대로 묵인되고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한것이였다.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열책동에 의해 우리 나라에는 민족분열의 위기가 조성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통일이나, 분열이나 하는 첨예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 엄혹한 시기 공화국은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주체36(1947)년 10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련석회의소집제안은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려는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분열세력의 방해책동은 악랄했지만 공화국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는 1 000여만명의 각계층성원들이 소속된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남조선의 거의 모

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주주의자들까지 참가한 4월 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치세력들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우익정객들까지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20세기 새로운 문화정치대본영》이 된 평양에서 북과 남의 애국적인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독립을 전취할대제》를 합의한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강조하였다.

당시 련석회의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미국의 한 출판물도 《미국의 남

조선단독선거강행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1948년 4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련석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 회의에는 리승만, 김성수일파의 3개 단체가 빠졌을 뿐 극우익으로부터 좌익에 이르는 모든 단체가 참가하였다.》고 전하였다.

정녕 해방직후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민족적대회합이 이룩되게 된것은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

이번에 공화국은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급접촉을 열고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이는 평화를 바라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해온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70년 동안이나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

다 귀중한것은 없다.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미국이 강요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삼천리강도가 재더미로 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도 벌어졌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60년세월이 넘었지만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한번 진정한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

미국은 《타임 스퍼리트》, 《을지 프리덤 가디언》, 《독수리》와 같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여러차례 감행하면서 민족의 머리위에 전

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판문점사건, 《EC-1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과 같이 미국이 저지른 무력도발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세는 전쟁접경으로 치달아오르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은 무참히 유린되었다.

이번에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자그마한 불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는 곳이 바로 조선반도이다.

이제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참혹한 재

난이 삼천리강도와 우리 겨레의 머리위에 들쭉거리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평화는 저절로 지켜질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합쳐 웨치면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세력,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북과 남이 베풀어온 교전직전의 정세속에서 고위급급접촉을 가지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한다는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된다.

이번 합의로 마련된 긴장완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것은 우리 민족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

북과 남이 이번 합의를 성실히 리행해나가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평화적환경은 마련되고 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허영준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베네수엘라신문 《베아》 8월 24일부가 《자주는 조선통일의 담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조선해방 70돐을 맞으며 기념보고서를 발표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조선민족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외세에 의하여 분열을 강요당하였다.

《자주는 조선통일의 담보》

따라서 자주는 통일의 담보로 된다.

외세는 조선의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보다는 반북과 대결에서 더 리득을 보고있다.

이러한 외세를 통일문제에 끌어들이는다면 조선민족의 장래운명이 외세의 통략물로 되고 외세들 사이의 싸움의 희생물로 될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 자주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현단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은 조선반도에서 당면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자주통일 의지를 존중하는데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미국 역시 조선민족의 존중을 받을수 있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통일이 주변나라들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의 번영에 리익이 되도록 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본사기자

소중한 씨앗을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야

얼마전 북과 남이 고위급급접촉을 통해 예측할수 없는 충돌로 치닫던 험악한 사태를 막고 화해의 손을 잡은것을 두고 소중내외가 한결같이 지지환영하고있다.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한것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의 지가 얼마나 강렬한것인

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북과 남이 이번에 합의한 공동보도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있어서 소중한 합의가 아닐수 없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리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이번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민족의 공존, 공영, 공리를 위해 모처럼 마련된 소중한 씨앗으로 마음속에 심고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애써 가꾸

어야 한다.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의 재난이 들이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 평화의 기운을 더욱 높여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하는 립장에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손잡고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풍성한 결실로 가꿀 때 그것은 그대로 온 민족에게 환희와 기쁨을 안겨줄것이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

통일의 앞길은 밝다

얼마전 북남고위급급접촉이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된것을 보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것인가 하는것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마련한 긴급접촉과 귀중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 땅에서는 겨레가 바라지

않는 엄중한 군사적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쟁으로 타변져지게 되었을것이다. 겨레앞에 닥쳐들어온 그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고 북남관계에서 화를 북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이번 합의는 민족의 운명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는 우리 공화국의 민족중시의 정책을 반영하고있다.

우리 민족을 도로 가른 외세는 통일의 앞길에 계속 장애를 놓고 전쟁불구름을 몰아오겠지만 민족을 제일로 위하는 공화국이 있고 평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온 겨레의 적극적인 립장과 노력이 있어 북남관계와 통일의 앞길은 밝다.

함경남도인민위원회 교장 김춘수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야 한다

이번에 북남이 전쟁에 치달던 위기일발의 정세를 완화의 흐름으로 되돌려세우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이다.

사실 리성을 가진 조선사람치고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70년을 살아오고있는것만도 가슴이 터질 일인데 동족끼리 대결하며 긴장된 정세를 더욱 악화시

키는 길로 나간다면 외세에게만 어부지리를 줄뿐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접촉은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민족의 장애를 생각하고 대담하게 나아간다면 관계개선과 통일을 얼마든지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더는 후대들에게 민족의 수치스러운 분열사가 아니라 통일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세기를 이어오는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야 한다. 민족은 화해를 바라고 통일을 념원하고있다.

이번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안아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 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연구사 리 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올해는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비운의 해이기도 하다.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원한의 상처를 남긴 1945년 9월 8일 바로 이날 《해방자》의 칼을 쓰고 미군이 우리 조국의 절반방을 강점함으로써 민족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이 들쳐왔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미명하에 감행된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애당초 북과 남이라는 말도 몰랐을것이며 조선반도가 오늘과 같이 전쟁위험이 가장 짙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지도 않았을것이다.

한두해도 아니고 사람의 한생과도 거의 맞먹는 70년간 남조선을 타고앉아 주인공행세를 하며 온갖 범죄적만행을 일삼고있는 강점군에 대한 우리 민족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은 하늘에 닿았다.

따지고보면 미국이 남조선을

미국의 남조선강점력사를 끝장내야 한다

강점한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반도를 타고앉고 나아가서 세계지배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일찍부터 저들의 아시아침략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중요성을 간파해온 미국은 1945년에 38°선 이남지역을 제멋대로 일본군의 그 무슨 《무장해제》를 위한 작전지역으로 설정하고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서 식민지 지배자로 군림한 미국은 《군정》을 선포하고 친미적인 이승만 《정권》을 조작하였으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미국이 하수인들을 부추겨 조작해낸 각종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들에 의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이 정당화되고 강점군에 무제한한 특혜와 특권이 주어졌다.

이것도 성취하지 않아 미국은 전조선반도를 지배할 목적밑에 친미적인 이승만 《정권》을 사촉하여 조선전쟁의 불을 질렀다. 3년간에 걸치는 조선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전후에도 미국은 전조선반도 지배야망실현을 위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 《EC-121》 대항간첩비행사건, 관문점사건과 같은 도발적인 사건들을 련속 조작해내며 북침의 기회만 노리었다. 한편으로 수많은 무장장비들과 병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병시적으로 배치하여놓고 남조선의 호전세력들과 함께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매일과 같이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열점지역으로 만들어놓았다.

올해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지난 8월에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일보적전의 최악의 상태로 몰아갔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리는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침략의 화약내가 가서질출 돌랐고 우리 민족은 70년간 어느 하루도 마음편히 살수 없었다.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끼치는 고통과 불행은 이뿐이 아니다.

강점군이 치외법권을 행사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저지르는 살인, 강탈, 강간, 폭행 등으로 하여 그들이 겪는 재난과 불행은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힘든것이다.

남조선인민들뿐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을 말살할 흉심밑에 탄저균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며 남조선을 범죄적인 생화학무기시험장으로서 전번시킨 미국의 죄악은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이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이다.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은 미국에게 있어서 관심사항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며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뿐이다.

하기에 미국은 북과 남이 손을 잡고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갈 때마다 그 무슨 《북핵위기》이니, 《대량살상무기위협》이니 하는것들을 떠들며 동족사이에 리간질을 하고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였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서로 힘을 합쳐 6.15시대를 펼쳐나갈 때 미국이 음모양모로 이것을 훼방하며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북남관계진전에 방해를 놓아온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

며 평화통일로 나아가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동족간에 불신과 대결만을 부추기는 미국의 반통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날도 그만큼 지연되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침략군을 주둔시킬 하등의 리유와 구실이 없다. 이미 오래전에 유엔은 남조선에서 비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해 《해방자》요, 《보호자》요, 《원조자》요 뭐요 하던 때는 멀리 지나갔으며 우리 민족은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미군이 남조선에 있는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70년간 쌓이고쌓인 우리 민족의 반미감정의 폭발로 남조선에서 쫓겨가는 수치를 당하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신중하게 처신할 때이다

북남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 8월에 북과 남이 로심초사하여 업종한 사태를 극적으로 돌려세워 화를 북으로 전환시키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도 환영하고있다.

그런데 모처럼 찾아온 이런 분위기에 맞지 않게 남조선의 일각에서는 《10월도발가능성》이니, 《전단살포계획》이니 하는 불순한 발언들이 또다시 튀어나오고있다.

《북도발》 설을 떠드는 리유는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이러한 대결망언들과 계획들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모함이고 도발이다.

너무도 힘들게 만들어진 이번의 기회를 북남관계개선, 나아가서 민족의 통일로 지향시키자면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합

의정신을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를 귀중히 여기고 성실히 리행하여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그것은 벼랑끝까지 치달았던 북남관계의 위기와 전쟁위험을 주동적으로 접촉을 마련하여 완화와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돌려세운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여실히 립증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난데 행약질을 하는것과 같은 그런 도발적인 망언과 망동들은 쉽게 말해서 대화상대방을 믿을수 없고 믿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와 같다. 이것은 완화와 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자들이 어떻게 하나 현 정세흐름을 뒤집어엎으려고 고의적으로 꾸며내어 벌리고있는 도발소동들이다.

북남관계와 빼라살포

잔치상에 쉬파리처럼 얹미운것은 없다.

북과 남이 손잡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지금 또다시 반북빼라살포를 하겠다는 《탈북자》쓰레기들이 바로 그런 쉬파리들이다.

공화국은 《탈북자》쓰레기들의 빼라살포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데 대해 수도 없이 강조해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빼라살포가 목인되고 강행된 결과 북남사이에 총탄이 오가고 전쟁위험이 증대되었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난해 10월에도 인천 아시아경시대회를 계기로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소중한 합의가 불순세력의 빼라살포망동때문에 하늘로 날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로 전쟁직전까지 다달았던 정세가 완화되고 북남관계가 오랜 대결의 수렁에서 벗어나 화해와 관계개선에로 나아갈수 있는 국면이 조성된 지금 《탈북자》쓰레기들은 또다시 빼라살포를 하겠다고 헛담비고

있다. 리유는 명백하다. 북남관계악화가 지속되어야 저들의 밥줄이 잘 리우지 않을수 있기 때문이다.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을 위한 일정들이 준비되고 있는 시기에 수십만장의 빼라를 뿌려대겠다고 날치는 《탈북자》쓰레기들의 망발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또다시 북남관계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될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당국이 범죄적인 빼라살포를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어렵게 마련된 완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 하나하나의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때이다.

소중한 북남합의가 실속있게 리행되어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는가, 아니면 또다시 정세가 악화되어 극단으로 치달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본사기자 김 정 혁



반미시위에 나선 남조선인민들

또다시 뻔치는 검은마수

교전직전으로 치달던 일촉즉발의 조선반도정세가 완화와 관계개선으로 극적인 전환을 하고있는 지금 미국은 불안감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인 망동들을 일삼고있다.

얼마전 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크리스토퍼 힐은 북과 남이 무력충돌위기를 무적으로 해소하고 화해의 손을 잡자마자 《북은 일정시점에 가면 국가로서 기능할수 없을것》이라느니, 《남조선은 통일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끌어안을것》이라느니 하는 허풍담을 늘어놓았다.

2000년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처음으로 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무분별한 합의》라느니, 《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느니, 《북을 잘못 보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협박하다 못해 모든 문제를 저들과 철저히 협의하라고 남조선당국에 강박해나섰다.

조국해방 70돛과 함께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해에 공화국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애국애족의 원칙적립장을 표명하고 정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이에 질겁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새해벽두부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화국의 정의있는 노력을 터무니없이 시비증상하다 못해 그 무슨 《북조선붕괴론》까지 내뿜었으며 한편으로는 공화국에 대한 《고강도추리 최대규모에서 벌려놓아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취하였다.

회의 씨를 심어 긴장을 격화시키고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재현해보려는 미국의 교활한 술책의 산물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나온 북남관계사의 갈피마다에는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나선 미국의 범죄적행위가 뚜렷이 기록되어있다.

2000년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처음으로 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무분별한 합의》라느니, 《북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라느니, 《북을 잘못 보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협박하다 못해 모든 문제를 저들과 철저히 협의하라고 남조선당국에 강박해나섰다.

이 모든 사실들은 북남사이에 대결을 부추기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기 위해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침략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지금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아온 주범인 미국의 교활한 책동에 경계의 눈초리를 돌릴것을 요구 하고있다.

그 누구도 우리 겨레에게 통일을 선사해줄수 없다는것은 민족분열의 70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찾은 심각한 교훈이다. 외세의 민족리간책동,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북남관계개선의 큰 결심을 내걸어 화해와 단합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것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다.

북과 남은 화를 북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을 가꾸어나가는데서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간또대지진때 학살된 조선인희생자추도모임 진행

간또대지진때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때로부터 9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일 도쿄에 있는 간또대진재조선인희생자 추도비앞에서 도쿄동포추도모임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이 추도사를 하였다.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시 기 조선사람들이 일본땅에 강제로 끌려와 소나 말처럼 혹사당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맺힌 원한증에서 절대로 잊을수 없는것이 바로 간또대지진때 일제가 강행한 조선인대학살만행이라고 말하였다.

1923년 9월 1일 대지진이 간또지방을 휩쓸자 일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등의 류언비어를 퍼뜨리고 군대와 경찰은 물론 민간인으로 무어 관련하여 1일 도쿄에 있는 간또대진재조선인희생자 추도비앞에서 도쿄동포추도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때로부터 92년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당국은 억울하게 학살된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커녕 사건의 진상조차 밝히지 않고있으며 조선인 대학살만행의 역사적사실을 은폐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매년 70년과 관련하여 발표된 일본수상 아베의 담화는 일본의 과거 침략력사에 대한 성근한 반성과 사죄가 담겨져있지 않은것으로 하여 내외의 중요와 격분을 자아내

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새 세대들을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이 지난 날 식민지통치로 하여 일 본땅에 끌려온 재일동포들의 원한이 사무친 과거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며 공화국해의공민 권리를 유린하는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갈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올바른 과거 청산에 기초한 조일관계 정상화와 광범한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모임에서는 일본인사들의 발언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그는 새 세대들을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이 지난 날 식민지통치로 하여 일 본땅에 끌려온 재일동포들의 원한이 사무친 과거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며 공화국해의공민 권리를 유린하는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갈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올바른 과거 청산에 기초한 조일관계 정상화와 광범한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모임에서는 일본인사들의 발언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본사기자